성경 예언 해설집 〈8회〉

요셉

요셉은 정치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여호와께서 꿈에 지시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정책적으로 잘 수행하여 7년 풍년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7년 흉년에 저장한 양식으로 애굽과 이웃 나라 백성들까지 구제하였다.(창 41장)

요셉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있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하여 7년 흉년에 굶주림을 면하였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예언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 임시 나그네로 지나는 것이요 영주하는 것이 아니니 후일 여호와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리니 귀향하는 날 내 유골을 가나안으로 이장(移葬)하라"고 유언하였다. 요셉의 예언은 이루어져 예언한 지 3백여 년 지나 출애굽 할 때 그 자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요셉 지파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안장하였다.(창 50:22~26, 출13:19)

야곱의 예언에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牧者)가 나온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90년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성심으로 민족을 사랑하였다. 또한 요셉의 자손 여호수아는 40년간 성심으로 모세를 보필하였고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임무를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가나안 민족을 토벌하고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여호수아는 첫 사사로서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는 가나안 전 지역을 단시일에 점령할 것 같았으나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블레셋 지역과 서부 지중해 지역은 여전히 점령하지 못하여 7개 지파가 정착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답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싸워서 살 길을 찾아야지 왜 지체하느냐." 하였다.(수 18:1~10)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깊은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 회의를 느끼면서 강가에 어린 자식을 놔두고 떠나는 심정으로 터전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을 뒤로 하고 1백10세에 운명하였다.(수 24:29)

모세

모세는 레위의 4대손이다. BC 1525년 애굽에서 출생, 120세로 모압에서 사망하였다.

4백년 전 야곱의 예언대로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루우벤, 시므온, 레위 자손이 다시 범죄하여 재앙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다.

야곱은 루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였고 모세는 저주받은 루우벤을 회복시키려는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모세는 루우벤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루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수(人數)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신 33:6) 모세는 자기 지파 레위를 말하면서 자기와 형 아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고 말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린 것이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여호와는 선고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 같은 영광된 사명을 수행하였으나 아비의 죄가 자손 3대, 4대까지 임한다는 말씀대로 그의 조상 레위의 죄악이 모세의 대까지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레위가 분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불 같은 성품은 분노가 폭발하면 맨손으로 애급 사람 감독을 쳐서 죽이고(출 2:11~12), 시내 산에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용서치 않고 삼천명을 죽였을 정도이니(민 32:27~28) 분노할 때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내던져 깨뜨린 것은 죄인의 혈기요 의가 될 수 없고(출 32:15~19), 므리바 물가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여 미친 사람같이 망동하여 40년간 쌓은 공로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진노하여 "너는 결단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레위 지파 사람중에 모세의 6촌형 고라는 루우벤 지파 자손 다단과 공모하여 모세를 대항하다가 망하였으니 이것 역시 조상의 죄가 자손까지 임한 것이다.(민 26:9~11)

모세의 예언에서 시므온 지파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예언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써 재앙을 당할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담하여 큰 재앙이 임하여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다.(민 25:1~9)

사건 직후 2차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다른 지파는 1차 조사시와 비슷하나 시므온 지파는 1차 조사 인구가 5만 9천3백명인데(민 2장) 2차 인구는 2만 2천2백명이니 1차 조사시보다 3만 7천1백명이 감소하였으니 시므온 지파는 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민 26장)

야곱의 예언에서 저주받은 루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광야 시대 40년 기간 그 자손들이 범죄함으로써 야곱의 예언대로 보응되었다.

모세의 예언에서 유다 지파는 강자로서 싸워서 대적을 이길 것을 말하고 요셉 지파에 대해서도 야곱의 예언과 같고 단 지파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하였으니(신 33:22) 단을 바산의 사자로 말한 것은 단 지파가 가나안 중부 지방에서 이동하여 바산 지방에 속한 라이스를 점령할 때 용감하게 싸워 원주민을 추방하고 거주할 것을 모세는 미리 말한 것이다. 또한 상고 시대 바산 지역에 사자가 많이 서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산에 숨어있던 사자가 포효하며 뛰어나오듯 이긴자의 출현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흡사하여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본 문(신 18:15~22)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시내 산(호랩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로 여호와의 음성을 친히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무서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고 하였다.(하략)

해설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영도하고 운명 직전 40년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실패자가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여호와의 소원을 완성한다고 예언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모세의 법통을 계승하는 유대교 역사가 3천4백년 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 자손들이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유대교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예수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유다 지파 자손으로 출생한 예수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대교와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 유대교는 예수교의 주장을 부정하고 예수를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

유대교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예수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유다 지파 자손으로 출생한 예수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대교와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 유대교는 예수교의 주장을 부정하고 예수를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출애급 이후 시내 산에 체류할 때 십계명(헌법)을 여호와께서 선포할 때 모세가 대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뢰소리 같은 크고 무서운 음성으로 발표하였으니 산 아래 전 백성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천둥소리 같은고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옳다. 장차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세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선악과의 실체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

1면에 이어서

죄는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선악과)로 말미암아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지금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도 사람들이 원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나누어 놓은 것은 죄의 개념을 모르는 무지한 결과이다.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으니 선악과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곧 마귀'라고 하였으니 죄가 곧 마귀다. 그러므로 선악과 = 죄 = 마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 따로 있고 '선악과'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것이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짓는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짓는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다. 그러므로 죄의 정의를 내린다면 '죄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4.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점령한 것이다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점령한 것이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자.

㉠ 우리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 하는 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나니라. (고린도전서 12:23)

㉡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49~50)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성신을 마시거나 먹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마음을 먹는다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마귀의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요 더 정확하게는 마귀가 아담과 해와의 주체 영인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이다.

마귀가 모방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해와 앞에 나타나자 아무 의심 없이 마귀를 쳐다본 아담과 해와의 눈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해와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이다. 아담과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에덴동산을 빼앗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요, 실락원 사건인 것이다.

요점정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으므로 선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악을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악한 영이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곧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욕심이 죄이므로 선악과는 마귀의 마음이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게 되므로 피를 썩게 만드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요 선악과다. ☆선악과는 악한 마음이요, 욕심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며 사망의 신인 마귀다. ☆아담 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이 마귀를 쳐다봄으로써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점령해 들어와서 인간인 아담과 해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https://youtu.be/FoGL0-2mpE0

마조(馬祖) 스님의 기왓장 일화와 "日面佛 月面佛(일면불 월면불)"

마조 스님은 암자 앞에서 시커먼 기왓장 하나를 집어다 갈고 있는 회양 스님에게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은 "거울을 만들려 하네."라고 대답하였다.

해석: 음란한 마음을 초극하고 평생 거룩한 삶으로 정진하던 수도자들이 영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근본 이유는 '나'라는 것이 마귀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마귀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된 것이다. 마조록(馬祖錄)에는 '나'라는 것이 닦는 도(道)는 마치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풀이하면 기왓장을 아무리 갈아봤자 새카만 재만 흩날릴 뿐이지 거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조(馬祖) 스님이 임종 직전에 읊었던 "日面佛 月面佛(일면불 월면불)"

해석: 日과 月은 주야(晝夜)로 낮과 밤에 해당하는 24시간을 뜻하지 않겠는가? 面은 직접 마주하여 바라본다는 뜻인데,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인가? 佛은 그냥 부처가 아니다. 돌부처는 더욱 아니다. 생미륵이 되는 부처님이시다.*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3〉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3〉

하늘나라(天國) 극락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 1 – 3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미륵부처님(하나님)이 나오셨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희귀(稀貴)한 일이 발생되었고 또한 기존의 종교계에서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되었기에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특히 기존의 모든 종교계 중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 반발을 넘어 적대시하면서 축복은커녕 훼방과 질시를 넘어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에 음해를 떠나 미륵부처님(하나님)을 살해하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우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찮은 무리의 소란을 피하고 마귀를 소탕하시려 잠시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조희성 구세진인의 보광(普光: 세상 떠나심)을 두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희성님이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인류를 다 살리겠다는 매우 어렵고도 험한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자초하신 결과입니다.

개벽장되시는 하나님(미륵부처님)께서 마음만 정하시면 당신이 수모를 당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힘으로 누르시고 멸하시면 간단히 끝이 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모를 당하시며 보광의 길을 택하심은 당신의 자식들을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살려보시려는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가시는 길이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길로 가시게 계획하신 것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 요한계시록 20장 [개역한글] 1-3

And I saw an angel come down from heaven, having the key of the bottomless pit and a great chain in his hand.
And he laid hold on the dragon, that old serpent, which is the Devil, and Satan, and bound him a thousand years,
And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ut him up, and set a seal upon him, that he should deceive the nations no more, till the thousand years should be fulfilled: and after that he must be loosed a little season. Revelation 20장 [KJV] 1-3

我又看见一位天使从天降下，手里拿着无底坑的钥匙，和一条大链子。
他捉住那龙，就是古蛇，又叫魔鬼，也叫撒但，把他捆绑一千年，
扔在无底坑里，将无底坑关闭，用印封上，使他不得再迷惑列国，等到那一千年完了。以后必须暂时释放他。启示录 20 [简体] 1-3

해설: 하나님께서 대장마귀를 죽였지만 졸개마귀들은 잠깐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마귀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활개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어있던 마귀잔당들을 없애기 위한 작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북쪽과 중국에 일을 크게 벌려 한국을 망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므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고 결국은 빈손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시간에 나라의 혼란은 정리되고 다시 활기찬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불경의 기록을 참조하겠습니다.

[예] 묘법연화경 1권 방편품(方便品) 제 2
以五濁惡世 但樂着諸欲 如是等衆生 終不求佛道
이오탁악세 단락착제욕 여시등중생 종불구불도
當來世惡人 聞佛說一乘迷惑 不信受 破法墮惡道
당래세악인 문불설일승미혹 불신수 파법타악도

오탁악세(현세상)에 사람들은 욕심에 집착하고 즐거움만 찾는데 이같은 중생은 끝내 불도(佛道)를 구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께서 일승(一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미혹하여, 믿지도 아니하므로 법을 깨트리고 악도에 떨어지리라.

해설: 석존께서는 3000여 년 전에 불법을 펴시면서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삶(生老病死)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을 펴신다고 하며 지금의 불교가 창시되게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삼승법(三乘法)이 진실한 법이 아니므로 3000년 뒤에나 미륵부처님이 인간들에게 오셔서 올바른 대승의 일승법인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불사설(不死說)을 말씀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에 물이 들고 석존께서 말씀한 생로병사의 삼승법이 진실한 법인 줄 알고 착각하여 올바른 법을 깰 것을 벌써 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주의를 주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갖은 누명과 말로 할 수 없는 중상모략으로 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明鍾